

광주·부산시, 각각 AI·글로벌 허브도시 중심 미래동력 확보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광주시, 3.6조… ‘역대최대’ 규모
부산시, 가덕도신공항에 6890억

2026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주시와 부산시가 각각 지역 특화분야에서 대규모 예산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과 문화도시 조성에, 부산시는 교통 인프라와 글로벌 허브도시 구축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광주, AI 중심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

광주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6616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3372억원(10.1%) 증액된 수치다. 광주시는 AI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2단계 사업 예산 240억원,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문화도시 조성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5억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10억원), 국회도서관 분관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조감도

(1억 5000만원) 등 3대 국가문화시설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모두 반영됐다. 이외에도 비엔날레전시관 건립(55억원),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45억원) 등 문화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예산을 배정받았다.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1665억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267억원이 증액됐으며,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 238억원을 배정받았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중심 글로벌 허브 도약

부산시는 구체적인 총액을 밝히지 않았으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만 6890억원의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전략의 핵심 사업이다.

서부산 교통망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300억원), 하단~녹산선(370억원) 건설과 대저대교(70억

원), 엄궁대교(320억원) 등 낙동강 횡단 교량 사업도 대거 반영됐다.

부산시는 또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했다. 북항 글로벌 창업허브(50억원) 등이 포함됐으며, AI 대전환사업(70억원)과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111억원) 등 신산업 육성 예산도 확보했다.

◆지역별 특화 전략 뚜렷

두 도시의 예산 확보 전략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가 뚜렷하다. 광주시는 AI 산업과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AI 중심도시’라는 두 축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허브 구축과 금융·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와 부산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어, 최종 확정될 예산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규춘 기자 ch972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보성군

보성고, 자율협 공립고 2.0 선정

보성고등학교(교장 김문주)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주관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보성교육지원청과 보성군청이 협력한 결과로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교육 혁신의 대표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성고는 이번 선정으로 ▲지역 특화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재구조화 ▲기초·기본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력 제고 프로그램 ▲교원 전문성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학생 소질·적성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등을 추진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선다. /보성(전남)=양수영 기자

전남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전국 최다’

전남도는 올해 89개 축산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획득해 3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다. 국가인증(유기축산·무항생제·HACCP 등)을 받은 축산농가가 사양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과정에서 탄소 감축기술을 도입해 온실가스를 일반농가 기준 배출량보다 10% 이상 감축하면 인증해준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전남에서는 올해 89곳이 추가돼 총 148개 농가로 확대됐다. 전국 인증농가의 25%를 차지하며 최다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경북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박차

경북도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미공급 지역 지원을 늘리고 도시가스 회사의 시설 투자를 늘린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1.6%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85.6%는 물론 경기도를 제외한 도 단위 평균 72.5%보다 낮다.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1만8424㎢)과 두번째로 낮은(140.6명/㎢) 인구밀도로 가스 배관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광주시

AI·車·에너지 8개 기업 투자유치

인공지능(AI)·자동차·에너지 산업 8개 기업이 광주에 투자를 약속했다.

광주시는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인공지능·자동차·에너지 산업 8개 기업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해 투자금액 593억원, 고용창출 189명 규모의 효과가 기대된다.

투자협약 기업은 커먼코딩(서울), 두리에너지(경기), 이인(광주), 신소재산업(광주), 이노특장(전남), 디에이치오토아이(경기), 인프라엑스(광주), 한아(광주) 등 지역기업 4개사와 타지역기업 4개사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확정 “경북 칠곡으로 ‘둘리 엄마’ 보러오세요”

철강기업·협력업체 어려움 해소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우대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세계 철강 수요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철강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민과 정치권, 기업이 함께 노력해 이뤄낸 결실이라는 평가다.

시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불공정 수입세 유입 등으로 철강산업 악화가 심화될 것을 우려해 지난 7월 18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5일 현지 실사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정에 따라 포항시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을 우대받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대상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억원 한도에서 3.71% 금리, 2년 거치 5년 만기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7000만원 한도에서 2.68% 금리로 같은 조건의 대출을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은 대기업 설비투자의 경우 기존 6%에서 12%로,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10%에서 25%까지 상향된다.

또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과 기술 자문, 고용안정 지원 등 맞춤형 정책도 병행된다. 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금융·재정 지원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가산수피아에 공룡 로봇 설치

아기 공룡 둘리가 애타게 찾던 엄마가 경북 칠곡군 가산 숲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은 연간 30만 명이 찾는 가족형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칠곡군에 따르면 국내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가산수피아’에 세워진 브라키오사우루스 로봇 때문이다. 길이 42m에 달하는 이 로봇은 제작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움직이는 공룡으로 알려졌다.

멀리 도로에서부터 보이는 거대한 머리는 아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목을 흔들고 꼬리를 움직일 때마다 환호성이 터지고, 일부 아이들은 놀라 달아나기도 한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kih9@



칠곡 가산수피아에 공룡.

하지만 이내 초식 공룡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금세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선다.

부모 세대는 “둘리 엄마”라며 웃음을 짓고, 아이들은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이름을 확인하며 눈을 반짝인다. 가산수피아는 2018년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이후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다.

부산시, 해수부 이전 대응 정부라인 재편

내부 재배치·외부 전문가 영입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이전 대응과 민선8기 후반부 시정 성과 완성을 위해 9월 1일자로 정부라인을 전면 재편한다. 이번 인사는 내부 역량 재배치와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한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됐다.

내부 재배치를 살펴보면,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임용으로 공석이 된 정책수석보좌관 자리에는 전진영 정무기획보좌관이 발탁됐다. 전 보좌관은 민선8기 시정철학과 비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능력을 높게 평가받아왔다.

서울본부에 신설된 대외총괄보좌관에는 박광명 대변인이 임명돼 새 정부 정책환경 변화 대응과 국회 등 대

외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후임 대변인으로는 원영일 시민소통보좌관이 임용됐다.

외부 전문가 영입에서는 김민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정책보좌관이 정무기획보좌관에 전격 발탁됐다. 김 보좌관은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하며 지역현안에 대한 정무적 해결역량과 정책기획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외협력보좌관에는 이치우 전 대통령실 정부행정관이 임용돼 폭넓은 네트워크와 행정 경험을 활용하게 된다. 또 기존 정책협력보좌관 역할을 확장한 미래전략보좌관에는 전성하 전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이 임명돼 부산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미래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화순군, 신혼·다자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최대 36개월간 月25만원 지원
오늘부터 총 11가구 신규모집

화순군이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며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주거 안정과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전라남도도와 화순군이 함께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구당 월 최

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간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 화순군 내에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 심사를 통과한 가구이다. 화순군 신규 모집 가구 수는 총 11가구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결혼 예정자도 포함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은 12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다. /화순(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